

저소득 여성가구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정 미 숙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저소득 여성가구주, 빈곤의 여성화, 빈곤화 과정,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 가족해체

1. 서론

한국사회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양극화 담론과 함께 주요한 사회문제로 쟁점화 되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빈부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여성가구주는 빈

곤에 취약한 대표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여성가구주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크게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빈곤에의 취약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 증가¹⁾가 빈곤층 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빈곤연구에서 여성가구주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²⁾ 즉, 한국사회에서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가 주 대상이라는 점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여성가구주는 ‘문제’³⁾로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취약성을 갖는 여성빈곤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상징되고 있다(이혜경, 1998; 유정원, 2000; 여지영, 2002; 석재은, 2004).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가구주 빈곤문제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다. 빈곤의 여성화 개념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빈곤에 더 취약하다는 문제를 밝힘으로써 빈곤을 여성문제로 쟁점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빈곤층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빈곤문제에 있어서 젠더변수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빈곤과 남성의 빈곤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국내에서 빈곤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은 여성가구주 빈곤의 문제를 여성가구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차별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논의를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김영란, 1997; 정미숙, 2001; 이숙진, 2002; 황미영, 2002; 송다영, 2003). 여성가구주 빈곤의 문제를 교정이 필요한 결손가족의 문제 혹은 복지의 우선적 시혜대상으로서의 빈민가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여성가구주 빈곤의 문제를 성차별 구조에 기인한 젠더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성차별의 문제는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간에 나타나는 소득, 지출, 가족지원, 사회적 지원 등에서의 차이를 통해서 설명되며 빈곤에 대한 여성가구주의 상대적 취약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즉, 빈곤과 젠더의 문제를 연결 짓는 방식은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간에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빈곤연구

- 1)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사별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구는 1990년 56.1%에서 2000년 50.5%, 2005년 44.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구는 1990년 5.6%, 2000년 11.6%, 2005년 14.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년도).
- 2) 여성가구주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정치적 의제의 핵심이 되어 왔다. 여성가구주에 관심을 집중했던 첫 번째 이유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여성가구주라는 집단의 가시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적 증가와 함께 여성가구주 가구의 구성이 사별보다는 이혼과 비혼으로 인한 증가라는 점에서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두 번째 이유는 복지 수혜대상자 중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은 핵심적인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Lewis and Hobson, 1997: 3-5). 즉 90년대 서구 선진국은 노동시장의 불안정 증가와 함께 시장기제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공세 속에서 복지 공급의 중심적인 주제로 설정되었던 국가 복지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가족의 단결을 강조하는 도덕적인 목소리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 3)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린다 고든은 한부모 여성가구주(single mother)의 ‘문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복지 개혁자들의 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여성가구주들은 지나치게 피해자로서 묘사되었고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빈곤논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Gordon, 1994: 24-35)

에서 젠더의 문제는 여성가구주의 상대적 취약성을 밝히는 문제로 치환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나 복지체계에서 드러나는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간의 비대칭성은 빈곤의 원인이 아니라 빈곤의 결과이자 구조의 효과이다. 주변성의 맥락이 빠진 주변성의 결과만을 강조하게 될 때 여성가구주들은 대상화 되고, 피해자화·병리화 됨에 따라서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탐구를 가로막는다.

이와 같이 여성가구주 빈곤에 관한 연구가 빈곤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온 이유는 과정(process)으로서의 빈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설명되어 왔던 빈곤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변수에 대한 분석은 결과(outcome)로서의 빈곤문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빈곤선(poverty line)을 중심으로 한 소득빈곤(income poverty) 중심의 접근은 빈곤층의 총량적인 규모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로서의 빈곤문제는 성별화된 여성가구주 빈곤의 원인 및 특성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다. 결과(outcome)로서의 빈곤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득배분의 성별불평등 구조를 드러내지만 이러한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초래하는 권력은 단일한 요소가 아닌 다양한 권력망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중심의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결과로서의 빈곤은 권력의 가시적인(visible) 측면을 분석할 수 있지만 비가시적인(invisible) 측면 즉,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 빈곤이 누적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방식을 포착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가족 내의 지위에 의해 남성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노동권과 사회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송다영, 2005)을 고려해 볼 때 가족 내 권력관계가 어떻게 여성들을 빈곤에 취약하게 하는지 분석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가구주 빈곤연구에서 가족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요약되는 문제로서 노동시장 진입 시 장애 요인으로 설명되거나 가족 내 사적소득 이전이 빈곤완화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변수로 사용된다. 혹은 병리적 관점에서 여성가구주는 적응과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족은 보살핌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부여되는 가족복지의 공간으로서 전제되기 때문에 가족 내 성 역할과 성평등과 관련된 가족의 가치지향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기울이지 않았다(김인숙, 2004).⁴⁾ 가족이 빈곤 분석의 중요한 단위로 설명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빈곤경험은 비가시화되어 왔다. 이러한 ‘숨겨진 빈곤’(hidden poverty)(Lister, 1991)을 밝히는 작업은 과정으로서의 빈곤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여성가구주 빈곤 논의에서 여성가구주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으로 보편화(universalization) 시킴으로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가족해체’⁵⁾를 통해서 생계부양자였던 남성(남편)을 잃음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

4) 김인숙(2004)은 가족복지 지식의 주도적 패러다임을 “적응과 치료”로 분류하면서 가족복지 연구자들의 인식의 초점이 가족의 적응을 돕고 치료하는 문제에 있는 반면 가족의 보호적 기능이나 가족의 가치지향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미미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문제는 가족 현상의 구조적 원인과 인과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사유가 부족했던 결과이며 이러한 편향된 연구경향은 한국 사회의 현실적 적합성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 ‘가족해체’는 성별 노동분업을 전제한 이성에 핵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전제하고, 이 유형에서

라는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즉,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결혼관계 해체는 남편이 가져왔던 사회적 혜택과 경제적 자원을 잃게 됨으로서 빈곤이 발생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여성가구주가 빈곤한 것은 젠더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배경이 하층계층일 경우 더욱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계급적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강옥모, 2004: 132). 여성가구주 빈곤 논의가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사담당자라는 중산층 중심의 가족모델을 전제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의 목소리는 침묵되어 왔다. 저소득층 가족에서 생활했던 여성들은 남성 생계부양자를 잃음으로서 빈곤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이와는 다른 빈곤경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른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여성가구주 빈곤 문제에 있어서 젠더를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의 이념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결혼해체 이후에 여성가구주들이 겪는 소득 수준의 하락 문제는 남성 생계부양자 상실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없다. 계급적 배경의 차이 그리고 가족 구성원간의 권력 관계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의 개입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지지 않음으로서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지위는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생애사 속에 나타난 과정(process)으로서의 빈곤에 주목하여 여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빈곤에 이르렀는지 특히 가족 내 권력관계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제까지 ‘가족해체’를 여성가구주의 빈곤원인으로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던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그 전제를 문제화 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빈곤이 가족관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계량적인 접근방법으로는 가족 내의 권력관계를 둘러싼 사회화 과정과 가족 규범 등이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역동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성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한 빈곤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발생시키는 차별의 기제에 대해서 논의함으로써 소득중심의 전통적인 빈곤접근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여성가구주 빈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한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여성의 빈곤화와 생애사 방법론

빈곤연구에서 생애사 접근법에 주목하기 시작한 계기는 경제주의적 빈곤관점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기존의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빈곤의 다차원성과 빈곤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사회적 배제 관점이 기존의 빈곤 논의와 차별성을 갖는 측면은 바로 빈곤을 소득 중심의 경제적 결핍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권력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빈곤을 이끄는 과정

벗어난 다양한 가족형태, 특히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 증가는 가족이 해체된 가족위기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를 가족해체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이 개념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가족해체’라는 표현으로 쓰고자 한다.

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빈곤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로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생애사 접근법은 이러한 사회적 배제 관점에 부응하는 연구방법으로 탐색되고 있다(Zajczyk, 1995; Rustin and Chamberlayne, 2002). Rustin와 Chamberlayne(2003)은 사회적 배제 집단의 경험과 생애여정(life journeys)에 주목함으로써 얻게 되는 방법론적 함의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들 각각의 다른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지나친 일반화와 추상화를 피할 수 있다. 즉, 개인을 총합적이고, 평균적이며 혹은 변인들의 묶음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피함으로써 그들의 관점으로 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의 삶속에서 작동되는 세부적인 권력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개인들이 그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특정한 방식은 사회가 개인들을 구성하고 표준화하는 사고방식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생애사 접근법은 개인들의 삶을 형성하는 객관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의식과 주체성의 차이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저소득 여성가구의 빈곤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할 때 생애사 접근법이 갖는 방법론적 함의는 무엇인가?

여성가구의 빈곤문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제약하는 중층적인 권력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이며, 가족과 노동시장 안에서 그리고 가족과 노동시장 사이에서 작동되는 젠더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이다(정미숙, 2007). 특히 여성가구의 빈곤경험의 특수성은 바로 가족 내의 권력관계와 자원 형성 과정이 여성의 빈곤화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빈곤은 중요한 가족 사건들과 연결되어 형성되는 누적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여성가구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빈곤층이 되기 이전의 삶까지 포함하는 생애사적 접근이 요구된다.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맥락은 여성가구의 행위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개인 여성들의 삶 속에서 설명되는 가족과 일이 어떻게 여성들을 빈곤에 취약하게 하는지 그리고 여성들은 빈곤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생애사 접근법은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삼는 접근 방법으로서 구술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성주의 연구에서 생애사 접근은 여성의 주관성을 이론 형성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시간성, 과정성 그리고 변화성을 강조한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의 삶 전체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박성희, 2004: 252-57). 여성들의 생애과정과 젠더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여성 삶의 맥락성과 의식 그리고 여성 경험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생애사 접근법은 현대 여성운동의 초창기부터 사용되고 있다(Geiger, 1986).

생애사 접근법으로 여성가구의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두가지 중요한 방법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빈곤경험을 외부인의 관점이 아닌 내부자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본 여성가구의 빈곤에 대한 접근은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되며, 그 문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빠지게 된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빈곤여성의 모습은 병리학 모델에 기반한 해석으로 여성들은 약하고 병리학적 인성을 가지며 혹은 연민의 대상으로 재현된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빈곤 여성가구주에 대한 연구물들이 쌓일수록 빈곤 여성가구주의 모습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정형화되고 있으며, 이 정형화의 틀은 생각보다 아주 견고한 형태로 연구자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⁶⁾ 여성가구주 빈곤의 문제가 적절한 서비스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접근될수록 빈곤 여성가구주의 모습은 더욱 힘겹고, 지친모습으로 정형화될 수밖에 없다. 빈곤 여성가구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물질 자원의 결핍의 결과로 이야기되면 될 수록 빈곤여성의 모습은 비가시화 되고 왜곡된다.

여성들의 목소리로 빈곤경험을 듣는 것은 주변성의 맥락을 읽는 것이다(Parnell and Vanderkloot, 1994; Krumer-Nevo, 2005). 주변성의 맥락을 읽는 것은 불평등의 사회적 맥락을 읽는 것이며, 여성의 권력을 제약하는 성별화된 권력관계를 문제화하는 것이다. 주변성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성을 사회질서의 수동적 희생자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그것은 차별적인 사회제도와 싸우는 행위자로서 그들을 보는 것이며 여성들이 내면화하고 수용한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생애사 접근법에서 시간은 삶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은 성별화된 빈곤경험의 의미를 생애과정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여성가구주의 생애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자원형성 과정에서 작동하는 젠더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의 생애사는 남성과 달리 결혼,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불연속성과 꺾여진 인생의 뿔뿔을 갖게 된다(박성희, 2004:257). 따라서 여성의 자원형성과정에서 가족관계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작동되며 특히 출생가족에서의 어린시절 경험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각 세대의 의식의 차이를 연구한 만하임은 “경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린시절의 경험과 인상은 경험 목록의 가장 밑에 위치하며 그러한 기층 경험 위에 그 이후의 경험들이 순서에 따라 차곡 차곡 누적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들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린시절의 기층경험인데 그 이유는 그 이후의 경험들이 그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경험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기층경험과의 관련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며, 이러한 경험 성층화가 개인의 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박재홍, 1999:261). 여성가구주들이 어린시절에 경험한 성역할의 사회화는 자원의 축적과 기회의 선택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빈곤경험의 의미는 빈곤층이 되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빈곤의 조건은 정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지기 보다는 박탈의 복잡한 누적과정에 의한 역동적인 과정에 의해서 특징지어 진다는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생애사 연구는 빈곤연구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과정으로서의 빈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위기에 처해 있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건과 조건에 집중하는 것

6) 조문영(2001)은 ‘가난’에 대한 외부사회의 담론이 실제 빈민지역에서 어떻게 변형, 굴절되면서 ‘가난의 문화’를 만드는가를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복지’는 가난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가 아닌 오히려 가난과 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도시빈민 일반에 대해 어떠한 ‘전형’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본 저소득 여성가구주에 대한 ‘전형’ 역시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은 개인을 사회적 주변화로 이끄는 그 과정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Zajczyk(1995)는 빈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맥락의 구조를 언급하는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건강조건, 시간사용 등과 같은 일반적이고 계량적인 시나리오와 질적이고 특별한 생애사 간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선정은 현재 법정 빈곤층이거나 차상위층 여성가구주로서 이혼을 했거나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가구주로 제한하였다.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구주를 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고, 성년 자녀를 둔 여성가구주 두사례를 포함하여 여성들 사이의 다양한 경험의 지형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10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법정 저소득층인 경우는 7명이고 차상위층이 3명이다. 10명 모두 이혼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2명은 재혼하였다. 유배우자 여성가구주 중 한명은 배우자가 가출상태이며, 다른 한명은 알코올중독과 결핵으로 치료중이다. 유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례는 다섯사례이고, 유년기와 결혼 후에 중산층의 삶을 살다가 이혼을 전후로 가난해진 사례는 네 사례, 유년 시절은 가난했으나 결혼을 계기로 계층상승을 했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빈곤층이 된 사례는 한사례이다. 7명의 여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명의 여성이 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 1명은 졸업을 했고 1명은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임신으로 중퇴를 하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1명, 초등학교를 다녔으나 졸업을 하지 못한 여성이 1명이다. 3명의 여성은 실직상태로 구직 중이었고, 2명의 여성은 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수급권자이다. 2명 모두 유배우자 여성가구주이며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인터뷰 바로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신용불량자인 여성은 6명이고,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의 여성이 1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1회당 2시간~5시간 정도 걸렸고 2회 인터뷰가 가능했던 여성은 4명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자료 수집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여러 번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있거나, 카드 빚 미납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하는 여성을 만나서 인생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기 어려웠으며 여러 번 만나는 더욱 힘들었다. 가능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끔씩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끊거나 이어지도록 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련 사항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연령	38	28	38	40	45	43	60	47	50	37
최종학력	고졸	고졸	무학	초졸	대졸	대학중퇴	고졸	고졸	고졸	고졸
혼인상태	별거 (2001) 이혼 (2004)	별거 (2001) 이혼 (2004)	이혼 (1983) / 재혼 후 남편가출 (2000)	이혼 (1985) / 재혼 후 남편중독	별거 (1996) 이혼 (1997)	별거 (1995) 이혼 (1997)	이혼 (2003)	별거 (2002) 이혼 (2004)	별거 (1992) 이혼 (2000)	별거 (2001) 이혼 (2003)
자녀상황	고1 중2	초1 5세	17세 16세 8세 6세	고3 초4	초4	중2 초5	33세 31세	고2 초4	23세	초2 7세
현재직업	정보지 배달	자활 공동체 참여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 불능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불능	실직	실직	입주 가정부	실직	빈대떡 장사	전단지 배포
법정곤여부	법정 모자가정	조건부 수급권자	일반 수급권자	일반 수급권자	법정 모자가정	-	-	조건부 수급권자	-	법정 모자가정
금융거래상태	신용 불량자	신용불량자	-	신용 불량자	-	용자1천만원,카드 미납상태	신용 불량자	신용 불량자	채무 4천만원	신용 불량자
부유주된업	농사	무직	농사	무직	영세 자영업	국책 기관 연구원	사업가	직업 군인	미군 부대 근무	무직
모의주된업	농사	막노동	농사	막노동	영세 자영업	전업 주부	전업 주부	전업 주부	전업 주부	옛공장 운영
형제관련사항	10남매 중 5번째	2남1남 중 2번째	6남1남 중 첫째	2남2남 중 막내	4남2남 중 셋째	1남2녀 중 첫째	3남2녀 중 둘째	2남2녀 중 셋째	2남3녀 중 둘째	5녀 중 4번째

자료는 연구자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하였으며,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녹음된 내용을 자료화하였다. 자료분석은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별 사례별로 분석을 하였다. 각 사례의 자료에서 발견되는 범주와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개별 사례 분석이 끝난 후 사례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면서 범주화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간이 생애사

사례1은 강원도에서 태어나 다섯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여동생만 데리고 충청도 청양으로 재혼을 하였다. 외가에서 자랐던 사례1은 여덟 살이 되어서야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다. 새 아버지는 슬하에 3남1녀가 있었고 어머니가 사례1과 여동생을 데리고 재혼을 하셔서 그 이후로 1남 3녀를 더 낳았다. 사례1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작은 아버지 두분, 결혼 안한 삼촌, 오빠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은 중학교 졸업하면서 서울에 있는 가발공장에 오기까지 계속되었으며 23세에 성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하였다. 생산직 노동자인 남편은 결혼 초부터 폭력과 함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하여 사례1이 실질적인 생계 책임을 지다가 결혼 17년만에 이혼을 하고 두 아

이를 키우고 있다.

사례2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버지와 평생 일을 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염색공장에 취직을 하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남편은 아이를 지나치게 많이 때렸으며 집을 나가 3년동안 연락 두절 되었고 이혼 후 양육비를 못준다고 다시 행방불명이 되었다. 사례2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계를 위해서 3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고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매달 40만원씩 빚을 갚고 있다.

사례3은 유년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례3을 데리고 재혼을 해서서 6녀1남을 낳으셨다. 새아버지는 인삼농사를 지으셨는데 사례3은 농사일을 돕느라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인삼농사가 망하면서 사례3은 본격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하였다. 15세에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19세에 결혼을 하기까지 가족생계부양을 도맡아했다. 남편의 폭력과 주사가 심해서 견딜 수 없었던 사례3은 26세에 서울로 도망 나오고 그 이후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재혼한 남편은 도박과 폭력이 심하여 5년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고 아이 넷을 키우고 있다. 현재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사례4는 2남2녀중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냈다. 19세도 되기 전에 열다섯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사례4는 20세에 집을 나와 인천에 오게 되고 다방에서 일을 하게 된다. 다방에서 만난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폭력이 매우 심했으며 알코올 중독자이나 “애못 낳는 나를 애를 낳게 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딸은 뇌병변 장애2급이고 아들은 정신지체 2급인 장애아이며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8번째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우울증이 매우 심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이다.

사례5는 부모님의 불화가 매우 심한 가정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서울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초등학교 시절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하였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낮에는 집에서 운영하는 장갑공장에서 일을 하였고 밤에는 야간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다. 생산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전공을 살려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벼락치기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이 심화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 후 공공근로와 텔레마케터, 보험영업, 인터넷 학습지 교사를 하다 현재는 장애인 복지관 지원 업무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다.

사례6은 국립조사연구원인 아버지와 전형적인 인텔리 집안에서 성장한 어머니 사이에서 2남2녀 중 둘째로 태어나 서울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여자는 살림 잘 배워 시집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신 분이셨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못하고 유통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 28세에 야간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 하였으나 졸업 마지막 학기에 임신이 되어 중퇴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대졸출신의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폭력을 일삼았으며 외도가 계기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생활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사례6은 이혼 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사례7은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3남2녀 중 둘째로 태어나 서울에서 상당히 유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대학을 진학할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남동생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 스물 다섯에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남편과 함께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남편의 폭력이 심해지면서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 후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7은 입주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다.

사례8은 직업군인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2남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세에 준 공무원인 교통순시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8세에 결혼 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녔다. 그러나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둘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출산을 하고 나서 퇴직을 하게 된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으나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부도가 나고 이혼을 하기까지 9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8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천5백만원의 채무를 떠안고 두 아이를 맡게 되었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꿀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사례9는 인천에서 미군부대에 다니셨던 아버지와 자그마한 양장점을 운영하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유복한 유년기를 보냈다. 가부장적인 의식이 강한 아버지 때문에 대학진학이 어려웠던 사례9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무직에서 일을 하다 스물일곱에 대졸자인 남자와 결혼을 한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아 사례9가 가내부업, 막일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갔다. 사례9는 아파트 투기를 시작하여 돈벼락을 맞게 되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남편이 잡적을 하면서 사례9는 그동안 모은 전 재산으로 빚을 갚고 4천만원 정도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

사례10은 가족에 대한 생계는 전혀 책임지지 않으면서 매우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와 평생 노동관에서 힘들게 일하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다섯 자매 중 넷째로 태어나 성남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부모님은 영세 옛공장을 운영하셨고 유년기에는 엄마와 리어커를 끌고 옛배달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후 운수회사에 취직하여 10년간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돈 걱정 안하고 친정 식구들 힘들 때 도와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점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사례10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채무로부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 후 노점상을 하였으며 지금은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현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4.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빈곤에 이르렀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빈곤층이 되었는가? 빈곤경로가 동일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구 참여자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는 크게 1) 어린시절부터 가난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빈곤이 지속되는 경우와 2) 이혼을 전후로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유년기부터 빈

곤이 지속된 경우 학력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형성할 기회를 제한 받게 되며 가족 내 자원 결핍에 따른 다양한 갈등을 일찍 경험 하게 됨에 따라서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빈곤의 지속'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반면 유년기 혹은 결혼 후의 계급적 지위가 중산층이었다가 이혼을 전후로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경우는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2>에서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빈곤의 지속 유형은 출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가난했거나(사례 5, 사례2, 사례4),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던(사례1, 사례3) 사례가 해당된다. 이들은 가족 내의 경제적 자원 제약으로 일찍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활동을 시작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다. 남편의 직업은 생산직(사례1, 사례2), 단순노동(사례3, 사례4, 사례5)으로서 결혼이후의 계층적 지위 역시 저소득층에 위치되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결혼관계 안에서 배우자는 알콜 중독, 폭력 행사와 함께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아 여성들은 실질적인 가구주로서 생계를 책임지다가 빈곤이 심화되어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혼을 한 경우(사례1, 사례2), 이혼을 하지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 속에 놓여 있는 경우(사례3, 사례4), 폭력으로 인한 이혼 후 빈곤이 더욱 가중된 경우(사례5)로 다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2> 계층 지위의 변화와 빈곤화 경로

유형분류	출생가족의 계층적 지위	형성가족의 계층적 지위	특징	해당사례
빈곤의 지속	저소득층	저소득층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한 이혼	사례1, 사례2
	저소득층	저소득층	결혼관계 유지로 인한 빈곤의 가중	사례3, 사례4
	저소득층	저소득층	이혼 후 빈곤 가속	사례5
빈곤으로의 유입	중산층	중산층	이혼 후 빈곤층으로 추락	사례6, 사례7
	중산층	중산층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빈곤 후 이혼	사례8, 사례9
	저소득층	중산층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빈곤 후 이혼	사례10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은 친정 아버지의 직업이 연구원, 사업가, 군인으로서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는 유년기를 보내고 결혼 이후에는 남편의 직업이 회사원, 사업가로서 중산층으로서의 계층적 지위를 가졌던 사례(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와 저소득층 가족에서 성장하였으나 외모 덕분에 지역에서 유지되었던 시댁의 며느리가 되었던 사례(사례10)가 해당된다. 유년기의 경험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거나(사례6, 사례7)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결혼관계 내에서 이미 빈곤해졌고 이혼을 하고 나서 더욱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는 사례(사례8, 사례9, 사례10)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는 계급적 지위와 젠더관계가 교차하면서 구성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는 동질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족이라는 장은 계급과 성이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남성 빈곤과는 다른 여성 빈곤의 복잡한 과정을 형성하는 하나의 축이다. 가족은 사회와 분리된 단위가 아니라 사회와 교차되고 상호 배제 하면서 여성의 빈곤화를 구조화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 가족이 처한 계급적 위치는 동일하지 않으며,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이 사회와 교차되고 배제되는 양상은 달라진다.

1) 출생가족과 성별화된 자원형성

(1) 자원배분의 성별성과 기회의 제약

유년기에 경험했던 가족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가족 내의 관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빈곤에 이르렀는가를 분석하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린시절의 경제적 상황은 교육연수, 첫 번째 직업 수준, 향후 직업기회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여러 단계의 인생주기에서 다양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조건이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불이익과 박탈을 누적시킴으로서 특정 개인이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을 제약한다(Whelan and Whelan, 1995: 46-7). 그러나 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기도 한다.

저소득층 가족에서 성장한 딸들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 항상 일을 해야만 했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 평생 일하지 않으면서 큰소리만 쳤던 아버지(사례2, 사례4, 사례10)와 아내와 농사를 같이 짓지만 본인은 주로 감독만 했던 아버지(사례1, 사례3), 특별한 직업이 없다가 아내와 같이 영세 가내공장을 운영했던 아버지(사례5)를 기억한다. 주로 농사와 영세 자영업으로 가족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은 어린 딸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찍부터 가족생계를 위해 노동을 분담해야 하는 요구를 받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엄마를 도와 배달을 하거나 농사를 짓고, 가내부업을 하기 시작한다.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딸들의 기여는 매우 크고 중요할 뿐 아니라 아들보다도 오랫동안 가족의 생계를 분담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이나 사업실패와 같은 상황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딸이 생계분담의 차원을 넘어서 주생계부양자가 되는 계기가 된다.

아버지가 (인삼농사) 사업에 망하시고 그래서 울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와서도 제가 다 했어요. 식당에서 사회생활 한 게 처음이에요. 그때 나이가 15, 16살. 그런데 제 나이를 속였어요. 스무살로 속여서 그 스무살 받은 월급을 제가 받았어요. 그 월급을 엄마, 아버지 다 갖다 줬어요. 막내동생은 정말 다 내가 키운 거예요. 우유 먹고 휴지 사대고. 그때 제 월급이 25만원이었어요. 그 당시 송아지 한 마리가 25만원이었어요. 내 월급 한달해야 송아지 한 마리 산다고 했어요. 정말 울산에서 에이급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제가 벌어서 그 식구 다 먹고 살았어요.(서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일을 다 했어요?) 나 아니면 못 먹고 사니까. 내가 만이니까. 공장에 갈려고 해도 월급이 적었어요. 공장에 갔었어요. 울산에 태화방직이라고 들어갔었는데 그 공장일 두달 일을 해도 식당일 한달 돈이 안되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때는 엄마가 돈을 타기도 전에 오셔. 그러면 주인이 '너희 엄마 돈 받으러 왔다' 그러면 엄마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월급을 주고, 주고.(사례3)

저소득층 가족에서 성장한 딸들은 가족 내의 자원이 제약되는 조건으로 인해 상당히 일찍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딸과 아들의 교육성취 기회를 동일하게 제약한 것은 아니었다. 사례5는 빈곤가족 출신으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분담하기 위해서 가내노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18세에 라디오 조립공장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초등학교 시절 성적이 우수하여 선생님들로부터 '머리가 좋다', '이 애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진학을 안시키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는 학업을 계속 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계를 도와야 했다. 가족의 생계가 매우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교육성취 기회가 제한되어 사례5 뿐만 아니라 오빠 역시 일찍 학업을 중단하여 상승이동을 위한 자원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남동생의 진학에서 보여진 부모님의 태도는 사례5의 학업중단이 단지 가족의 경제적 궁핍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른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례 5: 제 이름에 '남'자 이름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네가 남자였으면, 네가 남자였으면 뭐도 잘하고, 네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판사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연구자: 이름에 '남'자를 넣은 이유가 있었나요?

사례 5: 아들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때만 해도 아들선호 사상이 있어서. 오빠 위로 아들이 있었는데 세살 때 죽었대. 그래서 너무 아들이 귀한데 이 아들이 너무 몸이 약해. 그래서 불안한거야. 그래서 아들 낳겠지 해서 0남이라 지었는데 낳아보니 딸이야. 노는 것이 남자 같다고 해서 미리 이름을 지어놨어. 아들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한 부모에게 공부 잘 하는 딸은 별 의미를 갖지 않는다. 대를 이을 자식이 아닌 딸에게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갖기 때문이다. 공부 잘 하는 딸보다는 오랫동안 가족의 생계를 분담하는 딸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저소득층 가족에서 성장한 딸들은 가족 내의 자원이 제약되는 조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일찍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중산층 가족에서 성장한 딸들은 가족관계로부터 무엇을 요구받았으며 그 경험이 딸들의 자원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중산층 가족에서 성장한 딸이 이야기하는 출생가족에 대한 기억은 경제적 안정과 단란했던 가족관계이다. "아버지가 집에 계신 날에는 미도파에 가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사례7), "자식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시는 부모님"(사례8), "직업이 굉장해서 돈을 잘 벌었던 아버지"(사례9), "전형적인 인테리 집안의 어머니"(사례6)를 기억하는 딸들은 가족부양을 위해서 일찍 집을 떠나야 했던 저소득층 가족의 딸들과는 달리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풍요로움은 이 사례의 여성들이 남자 형제들과 동등한 학력 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물적 토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우리사회에서 학력자원은 경제적 자원을 형성

하는 가장 공식적인 통로로 이해되고 있다. 인적자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는 것 역시 학력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학력자원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은 가족 정치학이 작동되는 과정이다. 여성의 일차적인 자리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젠더 규범은 중산층 가족에서 딸들의 학력자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서 남자 형제들에 비해서 딸들이 좀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의식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되게 함으로써 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 친정 아버지는 심한 경우예요. 여자는 국문만 떼면 된다. 그거를 오히려 우기고 우기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다닌 거지. 아버지가 학교를 어느만큼 다녀야 한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상당한 가부장이고 움짱달짝 못하게. 어른이 계시면 무릎 꿇고 밥 먹게 하고 여자는 그러면 안돼. 밥 먹으면서 말하면 안돼. 아버지가 이거 안돼 하면 그걸로. 그래도 형제 중에 가장 어긋나게 한번씩 한 사람이 그래도 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요구조건을 하는 것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랬을 텐데.(사례9)

사례9는 아버지가 미군부대에 근무하셨던 덕분에 “고무신이라는 것은 신어 본적 없고, 운동화 아니면 리본 매는 옷에 구두 신고, 가족 가방 매고”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딸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자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범적 자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경제적 대표자로서 아버지는 ‘여자는 국문만 떼면 된다’고 믿고 있었기에 경제적 자원을 딸에게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조주현(2000)은 전문직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서 이들이 학력과 자격증을 갖추는데 있어서 아버지의 인정과 기대가 절대적인 힘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여자도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 아버지의 존재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이지 않은 전공영역을 택한 여성의 경우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기 여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경험은 여성들의 자원형성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가족 구성원이 그 자원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원의 전환은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들은 학업성취 능력과 상관없이 미래의 가족을 이끌 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너무도 쉽게 아들의 학력자원 형성을 위해 전환된다. 하지만 딸은 결국 전업주부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딸의 학력자원 형성을 위해 전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여성의 일차적 위치는 가족이라는 규범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전환시킨다.

(2) 성역할의 사회화와 체화된 규범

가족 제도 안에서 남성은 생계 책임자, 여성은 일차적 보살핌 책임자라는 성별 분업 규범은 사회 전반에서 남녀의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 작동된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족에서 이러한 성별 분업의 모델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일 뿐이다. 저소득층 가족의 딸들에게 기억되는 어머니는 평생 일을 하셨고, 힘들게 일을 하셨다.

엄마가 힘들게 사셨어요. 엄마가 평생 노동판에 다니시고 아버지는 전혀 일을 안 하셨어요. 당신은 보면서 엄마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는 그랬어.(사례10)

친정엄마는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죽어도 싫어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다음에는 꼭 남자로 태어난다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칠천지원수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싸우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사례5)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자녀들을 돌볼 경제적 여력도, 정서적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가족 내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이 실천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족에서도 보살핌 노동의 주요한 책임은 여전히 어머니의 역할로 부과된다. 집안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아이를 양육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어머니에게 딸은 자신의 이중, 삼중의 짐을 덜어줄 상대였던 것이다. 저소득층 가족에서 발생하는 보살핌의 위기는 딸의 노동 분담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

내 동생과 나는 다섯 살 터울 나는데 우리 엄마 성남시장에서 야채장사 하는데 내 동생 업고, 머리 에 밥 이고, 보온병 들고 밥 날라다 주고 그랬어요.(사례10)

자녀에게 헌신하는 어머니는 중산층 전업주부의 여성에게나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사례10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하고, 어린 동생을 업어 키우고, 밥을 날랐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자신에게 헌신했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도움을 주어야만 했던 어머니를 기억한다.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제약되는 상황은 가족구성원 모두의 선택폭을 좁히는 조건이지만 어머니의 노동을 분담하는 상대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점에서 딸들은 자신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최소한의 자원 형성에서 배제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시절부터 양육노동과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역할을 체화하고 전통적인 성역할을 벗어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었다.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냐고 연구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사례5), ‘크면서 꿈이라는 것이 없어졌다’(사례2)고 답하기도 하였다.

교육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산업화기와 달리 교육기회가 거의 보편화된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저소득층 가족에서 딸에게 요구되는 가사, 양육 노동은 딸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민가영(2006)은 저소득층 학업중단 십대 여성과 남성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삶의 이동경로에서 가족의 의미는 이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자아이들에게 가족은 가사노동과 같은 성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요하는 공간이지만 남자아이들에게 가족은 자신을 지원하는 준거집단이거나 부양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집에서 강요하는 ‘어린 엄마’ 노릇은 학업중단과 집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저소득층 가족에서 발생하는 보살핌 노동의 위기는 아들이 아닌 딸의 노동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딸의 학력자원 형성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가족을 돌보기 위한 노동 경험은 이후 결혼생활에서 희생적인 삶을 수용하는 기층경험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면, 중산층 가족에서 성장한 딸들은 어린시절부터 “여자는 고와야 한다, 착해야 한다”(사례7), “여자는 살림 잘 배워서 시집가는 거다”(사례6), “여자는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사례9) 라는 교육을 듣고 자랐다. 저소득층 가족의 딸들이 어린 엄마(little mother)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였다면, 중산층 가족의 딸들은 미래의 엄마(future mother)로서 성역할 규범을 학습 받는다.

딸들은 미래의 엄마로서 훈육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일차적인 정체성을 아내와 어머니로서 규정하게 되는 기층경험이 되었다. 여성들이 일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과정은 일에 대한 욕구와 자신의 정체성 간의 갈등 과정이기도 하다.

(만약 졸업을 하고 그 계통의 일을 시작했다면) 전환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좋은 남자 만나서 사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보상이 안 됐지. 나는 나름대로 포기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야. 큰 것을 포기한 거예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여자도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잖아. 기술 없이 들어가서 일 배워서 하려고 하면 여자가 어찌구 저찌구 하면서 시집이나 가지 그러고 예를 들어서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남자와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여자에게 감히 그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묵사발을 만들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건드리지는 않지.(사례6)

사례6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중단되었던 상황들을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 하였다. 자신의 인생에서 불연속성을 설명하는 지점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자라서 ‘묵사발’을 당했던 사례6은 여자라도 제대로 대우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전산관련 전공을 선택한다. 하지만 임신을 계기로 이러한 노력은 중단 하게 된다.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의지는 “좋은 남자 만나서 사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믿음과 같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서 임신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 결혼할 때 꿈은 무엇이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사례6은 “그냥, 뭐 아버지가 이야기 한 대로 알뜰하게 살림하는 거. 현모양처”라고 말한다. “잘 벌어들이면 살림만 재미나게 하는 그런 형”이었던 사례6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결혼생활이 엄마와 똑같이 살았던 것 같다고 한다.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공적 세계에서 펼쳐 보이고 싶은 욕구와 행복한 중산층 전업 주부로 살고 싶은 욕구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하지만 전자의 의식이 표면 의식이라면 후자의 의식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의 골격을 형성한 체화된 의식이라 볼 수 있다. 표면 의식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쉽게 이동되지만 체화된 의식은 쉽게 이동되지 않으며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어김없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다.

내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이게 자식들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 한 게 나왔어.(가장 닳고 싶지 않은 것은 어떤 거였어요?) 가장 닳고 싶지 않은 것은 밥상에서 아버지가 신경 안 쓰게 들이대는 거.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삼시 새끼를 그 시간에 오면 밥상이 딱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랬는데 그건 아니지 절대 그렇게 안살아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입력을 시키게 한 것 같아. 외식을 한달에 한번씩. 인스턴트 식품은 거의 안 먹었어요.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안 살아 안 살아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 오는 거예요

요 시집에 하는 거라든가. 이거 나빠,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 깨야 하는데 완전히 몸에 배어 버린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사례9)

이러한 체화된 성역할 규범은 이후의 삶에서 희생적인 방식의 관계를 맺게 되는 기층경험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자아배제(self-exclusion)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다. Sabour(1999)는 사회 문화적 배제, 상징적 배제와 같은 비가시적인 배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떤 집단이 주류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적대감과 낙인찍기를 통해서 스스로 물러서게 되는 자아배제 과정인 것이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주변화된 경험 역시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만이 아닌 사회적 규범에 의한 압력과 좌절적인 경험, 대안의 부재를 통해서 여성들 스스로 물러서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자아배제인 것이다. “미래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성역할 규범은 여성 가장이 되었을 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낮설고 수용되기 어려운 갈등의 지점을 형성하게 된다.

2) 결혼 이후 가족과 성별화된 자원통제

여성의 빈곤화 과정은 가족관계 안에서 여성이 어떻게 위치 지어지는지를 인식함으로써 분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빈곤은 가족과 보살핌에서의 성별분업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규범 등과 같이 사회와 제도를 구조화하는 장소와 의미들의 성별화된 위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성별화된 위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상호의존을 통해서 여성의 자원 형성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또한 여성의 지위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정의하는 규범들은 아내들이 가족 내에서 자원을 공평하게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부당한 착취를 수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혼인상태별 취업력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전업주부를 꿈꾸며 결혼관계로 진입하지만 대부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일을 다시 시작한 시점과 계기는 빈곤경로 유형에 따라 다르다. 빈곤의 지속 유형은 결혼(재혼) 생활 초기부터 남편이 생계 부양 능력/의사가 없었다.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 중독, 도박과 가출 등으로 여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그리고 남편을 보살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 때문에 가족을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은 남편과 같이 자영업을 하면서 혹은 이혼을 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혼인 상태별 취업력

유형	사례	결혼 전 취업력	결혼 후 취업력	이혼 후 취업력
빈곤 지속	사례1	생산직(가발공장)→사무직(경리)	가내부업→생산직(조립)→김밥집종업원→운동화세탁소운영→정보지 배달	정보지 배달, 택배아르바이트
	사례2	생산직(염색공장)	카드영업→정수기판매	커피숍 서빙→이삿짐센터 아르바이트→자활사업 참여
	사례3	식당종업원	식당종업원→이혼 후 재혼→식당종업원→중국집 운영→식당종업원→노점상→호프집종업원	
	사례4	-	농업→이혼→다방종업원→재혼→파출부→공공근로→막노동→생산직	
	사례5	생산직(장갑공장)→생산직(의류회사)	탁구장(자영업)	공공근로→텔레마케터→인터넷학습지 교사→복지관 지원 아르바이트
빈곤 유입	사례6	유통업→속옷회사→보험영업	전업주부	신문배달→막노동(타일미장)→학습지교사→실직
	사례7	무역회사 경리	쌀가게(자영업)→연탄가게(자영업)→보습학원(자영업)	입주 기사 도우미
	사례8	교통순시원	전업주부→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놀이방, 베이비시터)→실내놀이터 보조원→가스검침원→실직
	사례9	사무직(인쇄소)	생산직(닭공장)→가내부업→갈비집(자영업)→수입상가(자영업)→여행업(자영업)	빈대떡 장사
	사례10	사무직(운수업)	전업주부→피시방(자영업)	노점상→전단지 홍보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 시점과 계기는 빈곤경로 유형에 따라 달랐지만 여성들은 아내로서의 역할 때문에 빈곤에 더욱 취약하게 되는 공통의 경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아내로서의 역할은 저소득층 가족에서 남편이 생계부양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과 중산층 가족에서 남편이 실질적이든 명목적이든 생계부양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1) 이상(ideal)으로서의 남성 생계부양자 :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은 가족생계 분담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 내 갈등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노동시장 경험은 단순 반복적이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도구적인 의미로서의 의미화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결혼은 휴식처로서의 결혼, 탈출로서의 결혼 그리고 마지막 대안으로서의 결혼으로 의미된다.

따라서 결혼은 자신의 유일한 존재의미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가사 및 모성에 관한 태도를 둘러싼 가정중심성이 중간계급 여성보다 노동자 가족 내 기혼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발견되는 이유(조주은, 2002: 9)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빈곤의 지속유형 사례여성들 역시 전업주부를 희망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욕구와는 무관하게 결혼 초부터 소득활동을 시작하게 된

다. 배우자의 도박 및 외도, 알콜중독 등에 의해 결혼 초부터 주생계책임자로서 일을 해야 했던 사례(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와 배우자의 낮은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였다가 배우자의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본격적으로 주생계부양자가 된 경우(사례1)는 ‘정상’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였다. 아내가 가족원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은 남편이 가족부양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아내들은 보살핌의 연장선상에서 생계부양을 하게 된다.

사례 여성들은 결혼을 희망과 가능성으로서의 전환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과정으로서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한다. 아내폭력은 아내의 경제력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착취를 수용하는 억압적인 여성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 사례4 역시 아내폭력의 피해자이다. 사례4가 생계부양의 역할과 보살핌 노동을 하면서도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여성이 이야기 하는 여성 정체성은 폭력과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손찌검 안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그때부터 본색이 딱 드러나는데. 패는데 뭐랄까 장난감 두들겨 패는 것처럼. 각고목으로 맞아보셨어요? 칼로 목까지 대고. 다른 생각 전혀 안하고 저 사람이 나 얘기 만들어줬다. 그동안 애가 안 들어섰기 때문에 나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아빠와 관계를 가졌구. 그런데 관계 가진지 한달만에 애가 들어선거야. 제가 이 남자가 알콜 중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못 버리는 이유는 애 못 낳는 나를 애를 낳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사례4)

결혼제도 안에서 여성은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일차적으로 요구받는다. 여성은 출산을 함으로서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한 것이 되며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얻는다. 따라서 첫 번째 결혼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은 사례4가 결혼관계를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떠나게 하였다. 이 여성은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남편은 자신을 아꼈지만 아이를 낳아 달라고 계속 졸랐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는 자신을 결핍된 자, 비정상인 자로 인식하게 함으로서 출산하는 성에 절대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출산을 가능하게 했던 상대는 자신의 정상성을 회복하게 해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지라도 보살펴주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출산하는 성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때 아내폭력의 피해와 경제적 착취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 된다. ‘애 못 낳는 나’보다는 ‘폭력 당하는 나’, ‘착취당하는 나’가 더 견딜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여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혈압 약을 먹고, 호르몬제 조절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러 다녀도 그 일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더욱 갇히게 한다는 점에서 집밖의 일이 아닌, 집안의 일인 것이다.

아내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폭력과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남성을 부양자의 지위로 고정시키려는 남성 생계부양자규범에 의해 여성들 스스로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례1에게 가족의 의미는 “내가 다 끌어안는 것, 책임지는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가해자라기보다는 자신이 돌봐야 할 대상인 것이다. 사례1은 알콜 중독자인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강

제 입원을 시키고 남편의 치료비와 생계부양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하였다. 한달에 50만원씩 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2시 50분에 집을 나가 김밥가게에서 김밥 마는 일을 3년 정도 한다. 알코올 중독 치료로 실적이 된 남편이 계속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자 사례1은 그동안 일해서 모아둔 돈으로 조그마한 운동화 세탁소를 차린다.

연구자 : 가게를 열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례 1 : 벽찼죠.

연구자 : 사장님이 되셨으니 그러겠죠.

사례 1 : 어?~~~ 제가 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적 없어요. 그때 이 가게를 차린 게 신랑이 늘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고 어찌고 하면서 계속 놀았는데 갔다 와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맨날 게임만 몰두하고 살다가 혼자 3년을 혼자 벌어 먹고 살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차피 병원에 다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내가 해볼테니 같이 해보자. 남편을 위해서 이거를 한 거예요.

연구자 : 남편에게 반듯한 가게라도 차려주고 싶어서요?

사례 1 : 예. 그렇죠. 그럼 누가 홍보 사람도 없고 잘되든 못되든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수거하고 배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운전도 못했고, 오토바이도 못 탔으니까 남편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안 해 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안 나오고, 가게에 와서 때려 부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운전면허 뺐거든요.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니까 남편 거 있으나 마나.

생계부양자로서 일을 해온 사례1은 끊임없이 남편에게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이 자본을 만들고, 가게를 운영하고 남편은 배달 일만 도와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이 가게는 남편의 명의로 된 남편의 것이다. 사장인 남편의 비협조와 난동으로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자 사례1은 새벽에 신문배달 일을 하면서 남편을 설득해보지만 이것조차 쉽지 않았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가게에) 안 나오고, 가게에 와서 때려 부수고” 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을 부양자로 인정하는 상징적 힘의 결과이다. 상징적인 부양자 남편은 생계부양의 노력을 하지 않을지라도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다. 남편을 가족의 부양자로 위치시키려는 아내들의 노력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상징적인 힘을 작동시킴으로서 빈곤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례1은 결국 힘들게 모아서 차린 운동화 세탁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헐값에 처분하였다.

(2) 단일 가족과 피부양자 여성 :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가족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위인가? 일반적으로 계급연구의 분석 단위는 가구이며 남성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가족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분류된다. 이는 가족이 생산 관계와 소비 관계를 반영하는 기본 단위라는 인식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 위치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가구주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이재경, 2003: 91). 가족의 자원이 구성원들간에 평등하게 공유된다는 믿음이 전제되는 한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서의 가족이라는 신화는 유지된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이라는 통념이 있는 한 가족 내 자원 배분과 통제를 둘러싼 권력관계는 설명될 수 없다. 가족은 경제원칙이 아니라 애정원칙에 의한 것이라는 믿음은 남성의 경제적 착취를 가리는 덮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arrett and McIntosh, 1982).

자원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없는 노동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따라서가 아닌 남성 가장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진다. 남성 생계 책임자, 여성 가사 담당자라는 성별 분업의 원리는 실제적인 '분업'의 원리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을 비가시화시키는 차별의 기제로도 작동된다. 모든 여성은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한다는 점,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은 남성에 비해 비생산적이며,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자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성관(Pujol, 1995)은 하나의 신화로서 여성이 하는 일을 보이지 않게 하는 기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피부양자 통념은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통념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개인이 아닌 아내로서 피부양자로서의 역할로 의미화 하게 만드는 통념이다. 사례7과 사례10과 같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을 했던 경우에는 더욱 자신의 경제활동을 의미화하지 못했다. 사례9는 결혼 생활 내내 주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인 남편이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졌던 사례이다. 사례9의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일을 하지 않았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후진 직장'에는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에만 이력서를 넣느라 결혼 후에도 몇 년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한 후에도 가족에게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었고 더 가져다 쓰는 생활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가내 부업을 하고 밤에는 닭공장에 다니는 등 '안한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였다. 그러다 경제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례9는 아파트 투기를 하여 '돈벼락'을 맞게 되지만 그 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성스런 가정'에서 '남편 가장'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한 가족의 생계 책임자는 남성 가장이라는 규범은 개별 남성을 가족의 경제 대리인으로 위치 시킨다. 사례9는 남성 가장을 아내의 경제적 대리인으로 인식하는 사회통념에 의해 동업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남편에게 사업 수익금을 주었던 경험을 하였다.

여행업을 동업을 했어요. 한 2년은 시작하면서 사무실 유지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얼마동안은 수익금을 가져가지 말고 잠재위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뭔 일이 있어서 돈이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뇌종양이라 수술을 하게 되서 돈을 보태려 했어요. 그래서 나 거기 물어 돈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하나까 '어~~ 그거 남편이 다 가져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나랑 사업을 한다면 나에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내랑 의논을 해서 자기가 사업에 매꿀게 있다고 해서 다 줬다는 거예요.(사례9)

부부는 하나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관계라는 인식은 동업자의 사업 수익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로 나타난다. 아내의 돈과 남편의 돈을 따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은 가족관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해타산적인 것이다. 따라서 동업자에게 이 문제는 여성을 개별적인 경제 행위자로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인식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부부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 가족의 생계 책임자는 남성 가장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개별 남성에게 가족의 경제 대리인으로서의 권리를 지지한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은 가부장적인 가족 안에서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위한 자원이 되기보다는 경제적 착취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논의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기까지 빈곤경로는 동일한가? 딸로서 아내로서의 가족 경험은 여성들의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 가족 내의 권력관계를 둘러싼 사회화 과정과 정체성은 빈곤층이 된 이후 빈곤을 해석하고 빈곤에 대응하는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문제는 그동안 여성가구주 탈빈곤에 대한 논의가 한편으로는 가족 환원론적 처방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 중심의 경제주의적 처방에 치중됨으로서 가족책임의 논리에 기반한 빈곤정책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결과(outcome)가 아닌 과정(process)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빈곤층을 형성하게 되는 경로와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생가족의 경제적 지위는 연구 참여자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이었다. 어린시절부터 가난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빈곤이 지속되었던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과 이혼을 전후로 빈곤층으로 유입된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은 빈곤화 과정에서 작동되는 차별기제에서 다른 지점을 이야기 하였다.

저소득층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여성들은 가족 내 자원의 제약으로 학력자원 형성 기회로부터 배제되면서 주변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자 형제들에 비해 더 적게 자원을 배분받게 되고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최소한의 자원형성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가족부양을 책임져야 했던 저소득층 가족의 딸들은 자신의 일이 독립적인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되지만 이들이 경험했던 가족은 이상(ideal)으로서의 가족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 여성들에게 빈곤은 남성 생계부양자 상실(이혼)의 결과가 아니라 결혼 관계 안에서 누적되어 왔던 빈곤의 가시화였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빈곤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중산층에서 유년기를 보낸 여성들은 가족 내 자원배분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성역할 규범을 체화하게 되면서 학력자원 형성에서 남자 형제들보다 낮은 학력을 갖게 되었다. 이 여성들에게 결혼은 정상적인 삶의 경로로 선택되었고 결혼관계 안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보살핌책임자라는 성별분업을 유지하였다. 이 관계에서 여성들은 직업경력이 단절되거나 자원통제권을 갖기 못하면서 빈곤에 취약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을 한 사례도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그 일이 자

신의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가족해체’의 결과가 아니라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기반한 자원배분·자원통계에서의 배제가 누적되어 가시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생활 동안 ‘정상적인 가족(The Family)’을 유지하게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그 과정은 빈곤하게 되는 과정을 동반하였다. 출생가족의 계층적 배경은 연구 참여자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가 달라지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모든 사례 여성들이 빈곤에 취약하게 되는 차별기제로 작동되었다. ‘정상’ 가족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론은 여성들을 생애과정 내내 경제적 주체로 설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신화로 존재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준거로 한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체계의 모델이 남성생계부양자에 의한 가족부양의 원칙에 기반하는 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특별한’ 그들만의 문제에서 비롯된 다기보다는 여성가구주의 지위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지위와 여성이 위치 지워지는 맥락과 분리되지 않는다. 여성가구주의 지위가 성별화된 사회권의 지표로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Duncan and Edward, 1997; Hobson, 1994).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families)에 대한 낙인을 지속시키며,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를 위한 탈빈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각종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작동되는 차별의 결과라는 점에서 여성가구주 빈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가구주 빈곤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대안은 이혼예방을 통한 가족유지를 강조하는 가족 환원론적 처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가구주의 빈곤이 ‘가족해체’의 결과가 아니라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작동되는 기회의 박탈 내지 제한의 결과라면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과 사회적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가치의 확산이 요구된다.

셋째, 여성가구주를 위한 탈빈곤 전략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인 접근의 방향 속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여성가구주에게 일자리만 제공해준다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빈곤신화는 물질적 지원 이외에 보육, 교육, 의료, 심리, 정서적 지원 등 비물질적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이유이다. 여성에게 빈곤은 물적 결핍의 결과만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남성과 관계 맺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성들은 딸·아내·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가장·노동자 정체성 간의 갈등과 재구성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빈곤경로에 따라서 여성가구주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가족, 노동시장, 교육 등에서의 성차별 경험은 성역할 규범을 스스로 체화하게 되는 기반이 됨으로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아의식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자립에 있어서 여성주의 의식 고양을 통한 자긍심 회복 및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접근에 대한 논의가 활

성화 되어야 한다.

여성가구주 탈빈곤 전략은 복지 서비스 지원의 문제만이 아닌 차별을 야기하는 중층적인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중층적인 과정은 빈곤정책이 탈빈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개입의 수준이 다양화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가구주를 위한 탈빈곤 전략은 사회 안에서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사회적 규칙을 수정하려는 방향 속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남성과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노동시장과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여성가구주의 빈곤경험을 외부인의 관점이 아니라 내부인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은 차별의 중층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첫 출발이 될 수 있다. 여성가구주 빈곤 경험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는 이것에 민감한 정책과 실천을 새롭게 상상하게 만드는 힘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이슈로서 빈곤문제를 쟁점화할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옥모. 2004. “한부모 가족과 빈곤: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한국사회복지학』 56(1).
-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31.
- 김인숙. 2004. “가족복지 지식의 패러다임: 반성과 모색”. 『사회복지리뷰』 8.
- 민가영. 2006. “저소득층 학업중단 남녀의 성별/계급 정체성 구성방식을 통한 젠더/계급 작동 연구”. 한국여성학회 주최 200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
- 박성희. 2004.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생애사를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원미사.
- 박재홍. 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 송다영. 2003.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 송다영. 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22.
- 여지영. 2002.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유정원. 2000. “한국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제4,5,6차 대우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숙진. 2002.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자활사업”. 『한국여성학』 18(2).
- 이재경. 2003. 『가족의 이름으로』.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이혜경. 1998. “빈곤의 여성화: 한국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빈곤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 UNDP.
- 정미숙. 2001. “여성가구주, 성별화된 빈곤 그리고 일: 어머니나 노동자냐”. 『경제와 사회』 51.
- 정미숙. 2007.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시론: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7(1).
- 조문영. 2001. “‘가난의 문화’ 만들기: 빈민지역에서 ‘가난’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조주은. 2002.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의 가정중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조주현. 2000. “성, 지식, 권력: 토근 전문직 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여성정체성의 정치학』. 서울:

또하나의 문화.

- 황미영. 2002. "빈곤여성의 자활 경로와 그 결과". 『상황과 복지』 12.
- Barrett, M and McIntoch, M. 1982. *The Anti-Social Family*. London: NLB. 김혜경(역).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1994. 서울: 여성사.
- Duncan, S. and Edwards, R. 1997. "Lone mothers and paid work-Rational Economic Man or Gendered moral rationalities?". *Feminist Economics* 3(2)
- Geiger. 1986. "Women's Life Histories: Method and Content". *Signs*. no.2.
- Gordon, L. 1994. *Pitied But Not Entitled*. Harvard University Press.
- Krumer-Nevo, M. 2005. "Reading a Poor Woman's Life: Issues and Dilemmas". *Journal of women & Social work*. Vol. 20 No.1. spring.
- Lewis, J and Hobson, B. 1997. *Lone mothers in European welfare regimes*. Jane Lewis e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Lister, R. 1991. "Concepts and causes of poverty". *Local Government Policy Making*. Vol. 17.No4.
- Parnell, M and Vanderkloot, J. 1994. "Poor Woom: Making a Difference". Marsha Pravder Mirkin ed. *Women in Context : Toward a Feminist Reconstruction of Psychotherapy*. The Guilford Press.
- Pujol, M. 1995. "Into the margin". Kuiper&Jolande Sap eds. *Out of the Margin*. London: Routledge.
- Rustin, M and Chamberlayne, p. 2002. "Introduction: from biography to social policy" in Chamberlayne, Rustin and Wengraf eds. *Biograph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Experiences and life journeys*. The Policy Press.
- Sabour. M. 1999. "The socio-Cultural Exclusion and Self-Exclusion of Foreigners in Finland-The case of Joensuu". in Paul Littlewood and Ignace Glorieux, Sebastian Herkommer, Ingrid Jonsson eds. *Social Exclusion in Europe: Problems and paradigms*. Ashgate.
- Whelan, B and Whelan, C. 1995. "In what sense is poverty multidimensional?". in Room ed.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The Policy Press.
- Zajczyk. 1995. "Between survey and social services analysis: an inquiry 'on two lines and three levels'". in Room ed.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The Policy Press.

A Study on Pauperization Process of Low-Income Woman Head of Household

Chung, Mi-Suk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feminization of poverty that is formed within family relations. In order to approach this question, this study analyses the process of becoming poor through the life stories of ten woman are now heads of a household.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study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member of a low-income class. I have classified them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 routes they are led into the low-income class; one is the continuation of poverty group, and the other is the new members of the low-income class group. The continuation of poverty group is the case where they have been poor since their childhood and are still poor in their adulthood. The new members of the low-income class group is the case where you have become a low-income class sometime around divorce. The difference of the groups are related to the differences of the ways the power relationships work within a family. Women head of a household are prone to poverty because of the discrimination in formation, distribution and control of resources in their original family and their family formed by marriage. The norm of male breadwinner worked as a discrimination device. But this kind of discrimination device showed differences in their workings according to class. The continuation of poverty group experienced exclusion in the gendered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 family and maintaining the family, whereas the other group experienced exclusion through the gendered nature of the distribution and control of resources.

By showing that the presupposition of discussions on the poverty of woman head of a household is false, these findings challenge the existing view that as long as 'The Family' is maintained women will not be poor.

keywords : low-income woman head of household, feminization of poverty, pauperization of women, family disintegration, norm of male breadwinner

[논문 접수일 : 07. 06. 22 게재확정일: 07. 08. 22]